

광주·대구시,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나선다

국제스포츠제전 경험 ‘풍부’... “저비용·고효율 대회”
 공동유치위원회 구성·본격 활동... 국내 4번째 도전
 국가브랜드 ↑ ... 동서화합·균형발전 기여 등 기대

광주시와 대구시가 46억 아시아인들의 대축제인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영·호남 대표도시인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가 이른바 ‘달빛동맹’을 통해 코로나19 비상 연대에 이어 달빛내륙철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영·호남 상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오후 국회 소공동에서 “양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공동 유치전을 공식화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주관으로 4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로, OCA 회원 45개국, 1만여 명이 40여개 종목에 참가하는 세계 메가스포츠 대회다.

이날 공동유치 발표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지역 국회의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 시장은 공동유치 선언문을 통해 “양 도시의 스포츠 기반 시설과 메가 스포츠 이벤트 운

영 경험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느 대회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탄소중립 실현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권 시장은 “대회 공동유치를 계기로 영·호남 동서화합을 이뤘다고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관광 및 경제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 개최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는 곧바로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했고, 공동유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시는 대회유치 의향서를 관계 중앙기관, 대한체육회, OCA에 전달하는 한편 광주·대구 공동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유치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행·재정적 협력·지원과 함께 대회 유치 최종 승인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에 대한 공동 활동도 추진키로 했다.

광주와 대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주요 경기 개최 도시로, 지난 2003년에는 대구에서, 2015년에는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렸다.

또 2011년에는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2019년에는 광주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두 지역 모두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공동 개최가 성사될 경우 기존 인프라와 대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하고, 스포츠와 교통 인프라 확충, 도시브랜드 제고와 국제 경쟁력 강화,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평창동계올림픽이나 여수엑스포와 같이 대규모 국제행사에 필요한 도로와 철도가 필요해 영호남 숙원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 또한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 관련 주요 일정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 ▲의회 동의 ▲대한체육회 유치 신청과 국내 후보도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타당성조사와 심의 ▲OCA 유치 신청과 개최도시 결정 등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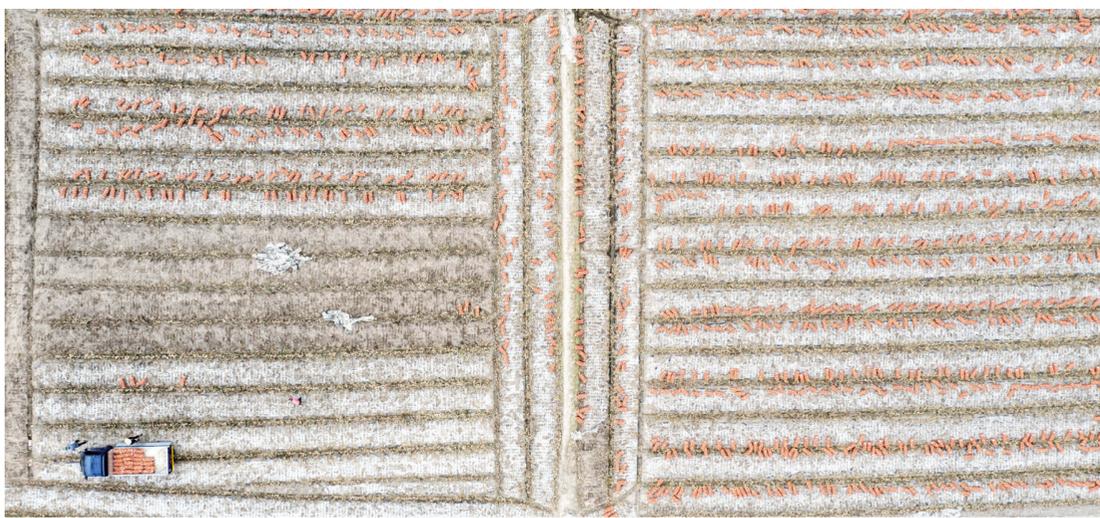
아시안게임은 OCA에서 통상 대회 10~14년 전에 개최도시를 결정하고 있어 2038년 대회는 2024년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대구가 개최도시로 최종 결정되면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 네 번째로 열리게 되며, 공동 개최는 국내 최초 사례가 된다.

2022년 제19회 아시안게임은 중국 항저우(9월10~25일), 2026년 제20회 대회는 일본 아이치·나고야(9월19~10월4일), 2030년 21회 대회는 카타르 도하, 2034년 22회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400만 양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 공동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햇 양파 수확 26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햇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보성군 득량면 해평 저수지 전경. (사진 제공 = 보성군)

‘호수 따라 강변 따라’ 보성 명품길 조성

보성군이 지역 주민을 위한 명품길을 조성하고 있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읍은 동운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한편 보성 다양 이십리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성 다양 이십리길은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상유십이 장계를 쓴 열선루(신흥동산)에서부터 동운천을 지나 반암교까지 이어진다. 왕복 9.2km코스다.

현재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득량 오봉산에도 주민을 위한 산책로인 오봉산 생태길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해평호수를 중심으로 수변산책길·유추골길·황소길 등 6가지 테마의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일부 구간이 개방돼 주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해평호수길은 산책로를 따라 산벚나무·삼

나무·편백·대나무·산죽·단풍나무·히어리·생강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다. 곳곳에 야생화들이 피어 누구나 편하게 걸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길로 통한다.

의병·독립운동의 정신이 깃든 벌교읍에는 ‘의(義)를 테마로 한 공원이 조성된다. 오는 6월 완공할 예정인 선근공원에는 답살이 의병장 안규홍 동상과 벌교의 의로운 주먹을 상징하는 황금주먹상, 보성의 의병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형 벽화 등으로 채워진다.

보성=김덕순 기자

곡성군

랜선 곡성 여행

제5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PHOTOGRAPHY

2017 제2회 곡성군 소셜미디어 사진공모전 입선작 김정현-침실습지의 부드러운 아침물결

공모기간
21. 3. 15. 월 - 6. 30. 수

발표일 2021. 7. 16. (금)

참여자 전국민 누구나

시상안내 18명 선정 / 총 상금 4,000,000원
작품 수준 미달시 아차상 취소 가능

발표안내 홈페이지 및 군 공식 블로그 게재 (개별 연락)
https://blog.naver.com/gokseong_love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사진 원본파일(3MB 이상)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이메일과 우편접수
이메일 : sangyu100@korea.kr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미래혁신과 스마트홍보팀